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다중병렬매개효과

김수란*

[국문요약]

본 연구는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적 상황에서 직업인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시기에 놓인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진로교육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내용적 요소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463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 학년, 전공계열, 대학소재지에 따라 진로적응성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고,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해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구성요인들의 다중병렬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진로적응성은 학년과 전공계열, 대학소재지에 따라 유의한 수준에서 평균 차이가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다중병렬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긍정심리자본의 구성요소 중 낙관성과 희망에서만 유의한 매개효과가 나타났고,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대상 진로교육을 구안하고자 할 때 취업에 임박한 고학년일수록, 지역에 위치한 대학일수록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긍정심리자본 중 낙관성과 희망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핵심주제어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 긍정심리자본, 다중병렬매개효과

* 제1저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조교수, enring@kmou.ac.kr

I. 서론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오늘날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분야의 눈부신 발전은 직업 및 노동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했다. 실제로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에 발간한 「직업의 미래 보고서 2023」에 따르면, 2023년에서 2027년 사이에 AI 및 머신러닝 전문가, 지속가능성 전문가 등은 현재 해당 고용 비율과 비교해서 25% 이상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였고, 은행 및 관련 공무원, 우체국 공무원 등은 50%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Di Battista, Grayling, & Hasselaar, 2023).

일찍이 Savickas(2005, 2013)는 2000년대 이후에는 급변하는 직업환경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면밀한 진로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대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보다 중요함을 언급하면서 진로교육에서 진로적응성(career adaptability)을 함양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본래 진로적응성은 Super와 Knasel(1981)이 진로성숙(career maturity)의 개념을 성인기에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해서 성인기의 진로발달을 설명하기 위해 최초로 제안한 개념이다. 이후에 진로 구성주의 이론을 제시한 Savickas와 Porfeli(2012)는 진로적응성을 불확실성이 높은 직업세계로 순조롭게 진입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문제, 예를 들어, 과업수행, 직업전환, 마음의 상처 등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일종의 심리적 자원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진로적응성은 긍정적인 진로발달 및 진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서(Hirschi, 2009) 직업세계로의 진입이라는 중요한 진로발달 과업에 놓인 대학생 시기에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대학생 대상 진로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인지 우리나라에서 2016년도부터 진로적응성과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대체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관련 변인 탐색을 실시하는 양적 연구가 수행되었다(김승미·손은령·이순희, 2021). 특히, 진로적응성의 예측변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서(유지연·신효정, 2019)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진로 관련 변인들을 탐색하는 데 기여하였다(김승미·손은령·이순희, 2021; 박은규·이서정, 2018; 육정원, 2020).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성별이나 학년, 전공계열, 대학소재지와 같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른 진로적응성을 고려하지 않아서 개인 맞춤형 진로적응성 함양 방안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단지, 몇몇 연구에서 성별(이난, 2022; 조성연·민경석, 2011), 학년(성소연·배성아, 2015; 이난, 2022;), 전공(이난, 2022), 경제적 수준(조성연·민경석, 2011)에 따른 차이 분석결과가 보고되었을 뿐이며, 이마저도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요즘과 같은 시대적 환경에 진로적응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사회인으로 전환기에 놓인 대학생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진로적응성의 특징을 면밀하게 파악하여야 그에 따른 중재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박미희, 2020),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적응성을 측정하여, 성별이나 학년, 전공계열과 더불어 대학의 소재지에 따라 진로적응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여 대상에 따른 차별적인 중재 방안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편, 진로적응성과 관련된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에서는 Lent, Brown, & Hackett(1994)의 사회인지이론에 근거하여 심리적, 환경적, 행동적 변인들을 토대로 진로적응성과 관련된 다양한 관계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김승미·손은령·이순희, 2021; 박은규·이서정, 2018). 보다 구체적으로 진로적응성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한 김승미·손은령·이순희(2021)에 따르면, 진로적응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연구가 가장 많이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높은 연결중심성을 가지는 것이 보고되어(강민수, 2023) 두 변인 간의 관련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학생의 진로적응성 관련 영향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박은규와 이서정(2018)에 의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다른 심리적 특성 변인 중에서 높은 효과크기가 산출됨을 밝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적응성에 중요

한 예측변인임을 알 수 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에 대한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으로(Taylor & Betz, 1983)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진로탐색 및 준비행동 등 전반적인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김경은·라영안, 2022; 김민정·김보환, 2014; 최민서, 202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 시기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가장 기본적으로 함양해야 할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토대로 진로적응성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직업인으로 전환기에 놓여 있는 대학생 시기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토대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직업세계로의 전환을 위한 진로적응성이 예측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현실 상황에서는 두 변인 사이에 개입될 수 있는 맥락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맥락적 요소는 사회·경제적 변인으로 경제성장률 등에 따른 고용 전망이 있다. 많은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다양한 스펙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실제 고용 전망이 밝지 않다면, 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2023년도 상반기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6%로 전망하고 고용탄성치 역시 낮아져서 청년층 취업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발표해(김민수, 2023.04.19.) 경제성장률과 고용 전망이 어두울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그리고 2023년도 하반기에 한국경제인협회가 대학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 10명 중 5명은 졸업 후 취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김형규, 2023.11.22.). 이러한 청년층의 취업난은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최근 5년 간 20대~30대 사이의 우울증 환자 수가 두 배 가까이 폭증하였고, 취업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천선희, 2023.09.06.).

이와 같은 상황이므로 최근 진로 분야에서는 개인의 노력으로 쉽게 개선이 어려운 사회·경제적 변인에 보다 적응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자원 변인에 주목하고 있다(박현미·유나현, 2021; 육정원, 2020). 특히 Lyubomirsky, King & Diener(2005)는 긍정적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어진 삶에 더욱 만족하고 생산적으로 행동하고, 그 결과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성공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여 진로발달 분야에서도 주목해야 할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이 보유한 긍정적인 성향은 Luthans와 Youssef(2004)에 의해 인적 자본이나 사회적 자본처럼 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긍정적 심리 역할을 강조하는 긍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으로 언급되고 있다. 긍정심리자본은 Seligman(1998)이 제시한 긍정심리학에 기반하여 어떤 문제 상황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요소, 예를 들어, 우울이나 스트레스 등에 집중해서 그것을 없애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 예를 들어, 낙관성이나 희망 등에 집중해서 그것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긍정심리자본은 이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 진로적응성 등 대학생 시기의 진로발달과 관련된 변인들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이 입증되었다(강진, 2021; 정기수·하정희, 2018). 특히 긍정심리자본은 충분히 개발될 수 있는 성향(Luthans et al., 2010)으로 밝혀짐에 따라 대학생 시기의 진로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불확실성이 높은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개인의 내적 자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긍정심리자본에 주목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긍정심리자본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과 신념인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hope),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본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회복탄력성(resilience), 개인이 갖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인 낙관성(optimism)이라는 4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각각의 구성요인들은 개인의 긍정심리자본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4가지 요소가 통합적으로 작용할 때 상호상승의 효과가 나타나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Luthans et al., 2010). 그러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연구한 강진(2021)과 권수정(2022)은 긍정심리자본의 4가지 하위 구성요인의 영향력이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여, 긍정심리자본 중에 어떠한 요인에 중점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시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긍정심리자본을 구성하는 각각의 하위 요인별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

는지 다중병렬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진로교육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긍정심리자본의 내용적 요소 탐색에 실증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은 성별, 학년, 전공계열, 대학소재지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둘째,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다중병렬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2.1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DMSE)은 Bandura(1977)가 제시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진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Hackett과 Betz(1981)가 제안한 개념이다. 그들은 Bandura(1977)가 제시한 자기효능감은 삶의 전반적 영역에서 두루 적용이 가능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의 수행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며 진로 영역에서의 자기효능감, 즉, 직업적 자기효능감(occupational self-efficacy)을 제시하였다(Hackett & Betz, 1981). 이후에 Taylor와 Betz(1983)는 자기 자신의 진로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신념을 뜻하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으로 구체화하였다. 특히, Betz, Klien, & Talyor(1996)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단축형 척도(CDMSE-SF)를 개발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단축형 척도를 이은진(2001)이 번안하면서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김선중(2005)은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대학생 시기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입증하였다. 이 밖에도 많은 연구들에서 대학생 시기에 진로결정에 대한 효능감이 높으면, 자기 자신의 진로탐색이나 선택, 진로준비행동, 진로적응 등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여(김경은·라영안, 2022; 김민정·김봉환, 2014; 성소연·배성아, 2015)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진로발달 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진로적응성에 대한 예측변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2.2 긍정심리자본

일찍이 Seligman(1998)은 긍정심리학을 창시해 심리적 부적응 문제를 수정하기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 건강, 행복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긍정심리학에 기반하여 Luthans와 Youssef(2004)는 긍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을 개념화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이란, 잠재적으로 개발 가능한 개인이 보유한 긍정적인 심리상태로 정의된다(Luthans & Youssef, 2004). 긍정심리자본은 경제적 자본, 인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처럼 양적인 한계도 없고,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고, 경쟁과 불평등의 문제가 수반되지 않는 누구나 노력을 하면 함양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상태적 자본이라는 특징이 있다(Luthans & Youssef, 2007). 특히, Luthans와 Youssef(2004)는 다양한 문헌을 고찰한 결과 인간의 긍정적인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4가지 하위 구성요인을 제시하였다. 각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과 신념으로, 긍정심리자본의 대표적인 요인이다. 실제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실패가 두려워 도전을 주저하기보다 어려워 보여도 도전적인 일을 선

택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동기부여 하면서 노력하고 인내하는 특성이 있다(Luthans, Youssef, & Avolio, 2007). 그렇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보수집을 통해 도전하는 경험을 이끌고, 난관에 부딪혀도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진로적응성에 도움을 준다(강진, 2021).

둘째, 희망(hope)은 어려움에 직면해도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동기화하며 자신의 과업에 열중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도록 돕는다(Snyder, Irving, & Anderson, 1991). 희망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수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긍정적 에너지를 한곳으로 모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해도 대안을 잘 찾아낸다(Snyder, 2002). 희망은 낙관성과는 개념적으로 유사하고, 개인에게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자기효능감과 유사하지만 목표달성을 위한 과정과 경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Snyder, 2002). 이러한 희망은 취업 준비에 임박한 대학졸업예정자의 진로적응성과 진로구성행동, 그리고 진로만족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김나래·김지근, 2022)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요구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란 위기, 역경, 좌절, 실패 등에 직면했을 때 본래의 상태로 신속하게 회복하고, 더 나아가 이것을 계기로 더욱 성장하는 힘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Luthans, 2002).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위기나 역경, 좌절, 실패의 상황을 부정적인 요소로 지각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문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경향이 있다(Youssef & Luthans, 2007). 실제로 성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평균 이상인 집단은 취업스트레스와 무관하게 높은 수준의 진로준비행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손진희·김유진, 2022), 본격적인 취업 준비에 앞서 향상시켜야 할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낙관성(optimism)이란 자신의 앞날에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념, 태도, 사고방식(Seligman, 1998)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낙관성은 좌절과 실패 상황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발생한 이유를 지각함에 있어서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특수한 환경이라 귀인하는 특징이 있다(Luthans, Youssef, & Avolio, 2007). 따라서 낙관성이 높은 사람은 좌절과 실패와 같은 부정적인 사건에 직면해서 자기 비하나 우울, 절망에 빠질 확률이 낮으며, 오히려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 긍정적 정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utans et al., 2010). 또한 낙관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진로성공에 보다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으로 알려져(Tolentino et al., 2014) 진로 분야에서도 주목해야 할 요인임을 알 수 있다.

Luthans, Youssef, & Avolio(2007)에 따르면, 이러한 긍정심리자본의 4가지 하위 구성요인들은 상호상승 효과가 있어서 통합적으로 작용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진(2021)과 권수정(2022)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긍정심리자본의 구성요인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름을 제시하여 어떤 요인에 중점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시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도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변인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을 구성하는 요인의 다중병렬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대학생 대상 진로교육을 구안하고자 할 때 어떠한 내용적 요소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2.3 진로적응성

진로적응성(career adaptability)이라는 개념을 처음 소개한 Super와 Knasel(1981)은 성인기의 진로발달에서는 진로성숙(career maturity)보다는 변화하는 직업 및 직무 환경에 대처하는 개인의 태도와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진로적응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후에 Savickas(1997)는 진로적응성을 직업세계에 순조로운

진입을 위해서 예상이 가능한 변화뿐 아니라 미처 예상하지 못한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는 포괄적인 역량으로 보았다. 특히, Savickas(2005)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단순히 발달과업에 따른 진로발달을 촉진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진로를 개발하면서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능동적인 개념으로 진로적응성을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진로적응성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초기 성인기에 속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연구가 되었고(김승미·손은령·이순희, 2021), 초반에는 진로적응성에 대한 개념화를 통해 심리적 구인(constructs)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특히 Savickas와 Porfeli(2012)에 의해 진로적응성 척도(Career Adapt Abilities Scale; CAAS)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13개 국가에서 측정동일성이 확보되면서 진로적응성은 관심(concern), 호기심(curiosity), 통제(control), 자신감(confidence)의 4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음이 입증되었다. 여기에서 관심은 진로적응성에서 가장 중요한 차원으로 자기 자신의 앞으로의 진로에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하며, 호기심은 변화하는 직업환경에 개방적으로 탐색하려는 태도이며, 통제는 자기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구성해 가는 성향이고, 마지막으로 자신감은 어떠한 도전적 상황이나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Tak(2012)이 Savickas와 Porfeli(2012)의 CAAS를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것을 시작으로 문항을 일부 수정(정지은, 2013)하거나 단축형 척도를 개발(김민선·고은영, 2020)하면서, 진로적응성을 타당하고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진로적응성 측정도구가 보급되면서 진로적응성과 관련된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박은규·이서정, 2018; 육정원, 2020)와 진로적응성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연구(김지연·장은영, 2019; 최규하, 2016) 역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적 상황에서는 자신의 진로발달 과정에서 변화를 수용하고 유연한 대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Hirschi, 2009) 우리나라에서도 직업세계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탐색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유지연·신효정, 2019). 특히 최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해 2006년부터 2023년까지 발표된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 대한 연구 동향을 탐색한 강민수(2023)에 따르면, 전·후반기 모두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적응성과 높은 연결중심성이 나타남을 제시하였고, 전반기에는 사회적지지, 낙관성과 관련된 연구가, 후반기에는 진로장벽, 그릿, 강점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제시하였다. 이것을 통해 진로적응성과 관련된 연구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뿐 아니라 긍정심리 변인들과 관계 연구 역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진로적응성을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2.4 변인들 간의 관계

2.4.1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

선행연구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적응성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으로 입증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진로적응성에 대한 우리나라 연구동향을 분석한 김승미·손은령·이순희(2021)에 따르면, 진로적응성과 관계 연구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가장 많이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강민수(2023)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진로적응성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적응성과 가장 높은 연결중심성이 있음을 제시하여 두 변인 간의 관계가 밀접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박은규와 이서정(2018)의 연구에서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 .633으로 비교적 큰 효과크기를 제시하여 두 변인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백은경(2021)은 대학생의 진로장벽, 성격강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한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장벽은 진로적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성격강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고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시하였다. 윤정혜(2020) 역시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적응성이 높음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2.4.2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긍정심리자본의 관계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긍정심리자본 간의 관계를 살펴 보면, 윤정혜(2020)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구성요인 간의 상관계수가 .356~.604($p < .001$)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긍정심리자본의 모든 하위 구성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강진(2021)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구성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낙관성을 제외하고는 .43~.50($p < .01$)의 유의한 상관계수를 보고하였다. 또한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다중병렬매개효과를 검증한 권수정(2022) 역시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긍정심리자본의 모든 하위 구성요인은 .485~.666($p < .01$)의 유의한 상관계수를 보고하여 두 변인이 서로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하고, 긍정심리자본의 4가지 하위 구성요인 각각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2.4.3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적응성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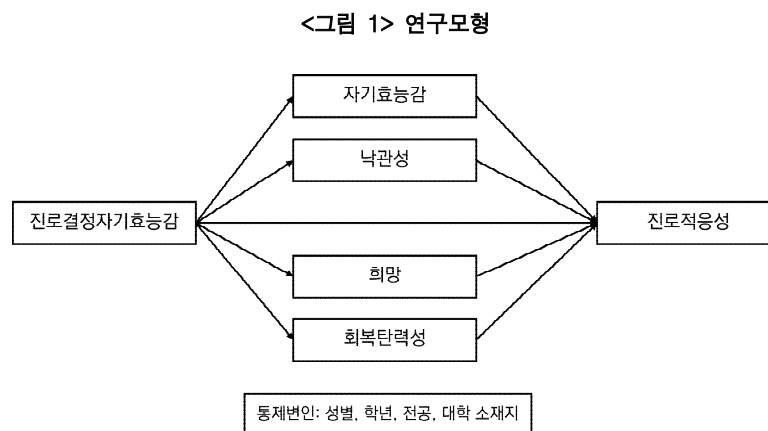
대체로 긍정적인 성향이 높은 사람은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보다 적응적인 태도를 보인다(Lyubomirsky, King & Diener, 2005). 이러한 경향성은 진로 분야에서도 나타난다. 강진(2021)은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적응성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33~.56($p < .01$)의 유의한 상관계수를 보고하였다. 이를 토대로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과 희망은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한 윤정혜(2020)는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적응성은 .001 수준에서 모든 하위요인들의 정적인 상관계수를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이 높은 학생들은 진로적응성 또한 높았지만, 희망의 경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적응성 간의 상호 관련성은 확인하였기 때문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중다회귀분석의 결과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구성요인마다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 긍정심리자본을 통합적인 구인(construct)으로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대신에 다중병렬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각각 하위 구성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2.5 연구모형

본 연구는 가장 먼저, 선행연구에서 진로적응성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진 진로결정자기효능감(강민수, 2023; 김승미·손은령·이순희, 2021)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Lyubomirsky, King & Diener(2005)이 개인이 보유한 긍정적 성향은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토대로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이러한 긍정심리자본은 4가지 하위 요인 각각이 긍정심리자본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음에도(Luthans et al., 2010), 선행연구(강진, 2021; 권수정, 2022)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들이 서로 다른 영향력을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에서도 4가지 하위 요인 각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다중병렬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연구모형을 분석함에 있어서 선행연구(박미희, 2020; 성소연·배성아, 2015; 이난, 2022; 조성연·민경석, 2011)에 의해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이 성별, 학년, 전공, 대학 소재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대상 선정에 앞서 G-Power 3.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에서 요구되는 유의수준(α) .05,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15, 검정력($1-\beta$)은 .95, 총 6개의 측정변인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을 때 최소 표본수가 146명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에 지역과 학년, 전공계열을 고려하여 수도권·충청·전라·경상 지역에 위치한 4년제 종합 대학교에 재학 중인 463명(수도권 116명, 충청권 104명, 전라권 106명, 경상권 13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학년과 전공계열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단위: 명)

구분	학년				전공계열			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인문·사회	자연·공학	의학·예체능	
남학생	73	26	55	69	106	98	19	223
여학생	121	77	36	6	171	42	27	240
합계	194	103	91	75	277	140	46	463

3.2 측정도구

3.2.1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이은진(2001)이 번안한 CDMSE-SF(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hort Form)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Betz, Klien, & Talyor(1996)이 개발한 것을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측정하기 용이하도록 번안된 것으로 자기평가(5문항), 직업정보수집(5문항), 목표설정(5문항), 계획수립(5문항), 문제해결(5문항)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해 응답자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자신의 진로결정에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이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자기평가 .743, 직업정보수집 .654, 목표설정 .794, 계획수립 .816, 문제해결 .774로 나타나 측정 문항의 신뢰도가 양호함을 알 수 있다.

3.2.2 진로적응성

진로적응성 측정은 Tak(2012)이 Savickas와 Porfeli(2012)가 개발한 CAAS(Career Adapt Ability Scale)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관심(6문항), 통제(6문항), 호기심(6문항), 자신감(6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해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적응성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관심 .816, 통제 .849, 호기심 .779, 확신 .761로 나타났다.

3.2.3 긍정심리자본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측정을 위해 Luthans, Youssef & Avolio(2007)가 개발한 PCQ(Psychological Capital Questionnaire)를 임태홍(2014)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타당화하고, 최근 장현정(2021)이 수정·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효능감(5문항), 낙관성(5문항), 희망(5문항), 회복탄력성(3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해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심리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긍정심리자본 척도의 Cronbach α 계수 .919, .832, .829, .844로 나타나 신뢰로운 문항임을 확인하였다.

3.3 자료분석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긍정심리자본의 다중병렬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SPSS 25.0과 PROCESS macro 4.2를 사용하였다. 측정변인의 측정의 질을 확인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일반 경향성과 정상분포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측정변인 간 관계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검토하였고,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공차와 VIF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초 분석을 실시한 후, 통제변인에 따른 진로적응성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와 ANOVA(사후검증: Tukey의 HSD)를 실시하였으며, 긍정심리자본의 다중병렬매개효과 분석은 Hayes(2013)가 제안한 model 4를 활용하여 계수를 산출하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매개효과 분석 시 가장 많이 사용했던 Baron과 Kenny(1986)의 분석 방법이 매개효과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검증하지 못하는 점과 단순매개모형에 의한 분석을 실시할 경우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단점 때문에(이형권, 2020) 본 연구에서는 Hayes(2013)가 제공하는 PROCESS macro를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PROCESS macro를 활용해 다중병렬매개효과를 검증하면, 직·간접 효과를 한 번에 분석할 수 있고, 각 변인의 개별 매개효과 역시 동시에 검증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매개변인의 간접효과의 크기에 대해 공식적인 비교(formal comparison)가 가능한 이점이 있다.

IV. 연구 결과

4.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된 측정변인들의 평균은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3.361~3.752로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561~1.042로 확인되었다. 또한 왜도가 모두 2 미만, 첨도가 7 미만으로 확인되어 정상분포 조건을 충족(Hong, Malik, & Lee, 2003)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계수

구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긍정심리자본				진로 적응성	다중공선성	
		자기효능감	낙관성	희망	회복탄력성		공차	VIF
진로결정자기효능감	1						.263	3.800
긍정 심리 자본	자기효능감	.804***	1				.285	3.505
	낙관성	.680***	.711***	1			.358	2.796
	희망	.799***	.773***	.735***	1		.276	3.622
	회복탄력성	.584***	.532***	.631***	.560***	1	.557	1.797
진로적응성	.817***	.733***	.727***	.808***	.560***	1		
<i>M</i>	3.510	3.438	3.630	3.500	3.361	3.752		
<i>SD</i>	.614	.810	.817	.735	1.042	.561		
왜도	-.502	-.257	-.379	-.297	-.544	-.478		
첨도	1.008	-.535	-.267	-.192	-.099	.230		

*** $p < .001$, ** $p < .01$, * $p < .05$

또한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532~.817의 범위로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이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 상관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몇몇 변인의 경우, .8 이상의 상관계수가 나타나 다중공선성 진단을 실시하였는데, 공차는 .276~.557, VIF는 1.797~3.800의 범위로 다중공선성의 일반적 판단 기준인 공차 .1 이하, VIF 10 이상 되는 것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4.2 대학생의 성별, 학년, 전공계열, 대학소재지에 따른 진로적응성의 차이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의 정도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성별, 학년, 전공계열, 대학소재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을 보면,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났지 않았지만, 학년의 경우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진로적응성이 유의하게 낮게 보고됨을 알 수 있다. 전공계열에 있어서도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공학계열이 의학·예체능계열보다 유의한 수준에서 진로적응성의 평균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소재지에 따른 진로적응성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05 수준에서 유의한 평균 차이가 나타났으며 전라도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진로적응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3> 대학생의 성별, 학년, 전공계열, 대학소재지에 따른 진로적응성의 차이

구분		빈도(명)	진로적응성			
			M	SD	t or F	Tukey's HSD
성별	남성	223	3.700	.650	-1.890	-
	여성	240	3.800	.459		
학년	1학년 ^a	194	3.901	.458	17.741***	a,b>c,d
	2학년 ^b	103	3.858	.396		
	3학년 ^c	91	3.492	.629		
	4학년 ^d	75	3.537	.718		
전공계열	인문·사회 ^a	277	3.716	.576	4.011*	c>a,b
	자연·공학 ^b	140	3.752	.525		
	의학·예체능 ^c	46	3.967	.533		
대학소재지	수도권 ^a	116	3.710	.622	2.884*	d>c
	충청도 ^b	104	3.811	.350		
	전라도 ^c	106	3.641	.653		
	경상도 ^d	137	3.829	.548		

*** $p < .001$, ** $p < .01$, * $p < .05$

4.3 다중병렬매개효과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심리자본(자기효능감, 낙관성, 희망, 화목탄력성)의 다중병렬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Hayes(2013)가 제시한 PROCESS macro의 Model 4번(부트스트랩핑 샘플 5,000, 신뢰구간 95%)을 활용하였다. 우선, <표 4>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인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는데, <표 4>를 보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B=1.079$, $p<.001$)과 낙관성($B=.922$, $p<.001$), 희망($B=.954$, $p<.001$), 회복탄력성($B=1.113$, $p<.001$)에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β	SE	t	95% 신뢰구간	
						LLCI	ULCI
종속변인: 자기효능감	(상수)	.010		.199	.045	-.381	.399
	진로결정자기효능감	1.079	.818	.038	28.123***	1.004	1.155
통제변인	성별	-.185	-.114	.050	-3.730***	-.283	-.088
	학년	-.016	-.022	.025	-.621	-.066	.034
	전공	-.050	-.041	.038	-1.315	-.125	-.025
	지역	.012	.017	.023	.506	-.033	.056
F=176.087***, R²=.658							
종속변인: 낙관성	(상수)	-.074		.238	-.311	-.542	.394
	진로결정자기효능감	.922	.693	.046	20.031***	.831	1.012
통제변인	성별	.046	.028	.059	.776	-.071	.163
	학년	-.022	-.031	.031	-.731	-.082	.038
	전공	-.007	-.005	.045	-.148	-.096	.083
	지역	.177	.251	.027	6.460***	.123	.231
F=97.847***, R²=.517							
종속변인: 희망	(상수)	-.249		.182	-1.372	-.606	.108
	진로결정자기효능감	.954	.797	.035	27.162***	.885	1.023
통제변인	성별	.090	.061	.045	1.986*	.001	.179
	학년	.027	.042	.023	1.170	-.019	.073
	전공	.128	.117	.035	3.687***	.060	.196
	지역	.005	.008	.021	.252	-.036	.046
F=171.115***, R²=.652							
종속변인: 회복탄력성	(상수)	-1.586		.340	-4.667***	-2.254	-.918
	진로결정자기효능감	1.113	.656	.066	16.939***	.984	1.242
통제변인	성별	.220	.106	.085	2.595**	.053	.387
	학년	.241	.259	.044	5.527***	.155	.327
	전공	.086	.056	.065	1.326	-.042	.214
	지역	.027	.032	.039	.695	-.050	.104
F=59.649***, R²=.395							

*** $p < .001$, ** $p < .01$, * $p < .05$

또한 〈표 5〉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 것이다. 〈표 5〉를 보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B=.375$, $p<.001$)은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 영향을 미쳤고, 낙관성($B=.095$, $p<.001$)과 희망($B=.265$, $p<.001$)은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β	SE	t	95% 신뢰구간	
						LLCI	ULCI
-	(상수)	1.199		.118	10.200***	.968	1.431
종속변인: 진로적응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375	.410	.042	8.878***	.292	.457
종속변인: 진로적응성	자기효능감	-.001	-.001	.030	-.024	-.061	.059
	낙관성	.095	.138	.028	3.417***	.040	.149
	희망	.265	.347	.034	7.778***	.198	.332
	회복탄력성	.021	.040	.017	1.249	-.012	.055
통제변인	성별	-.052	-.047	.030	-1.769	-.111	.006
	학년	-.055	-.110	.015	-3.583***	-.085	-.025
	전공	-.042	-.050	.022	-1.859	-.086	.002
	지역	.060	.125	.014	4.334***	.033	.088
F=164.370***, R²=.766							

*** $p < .001$,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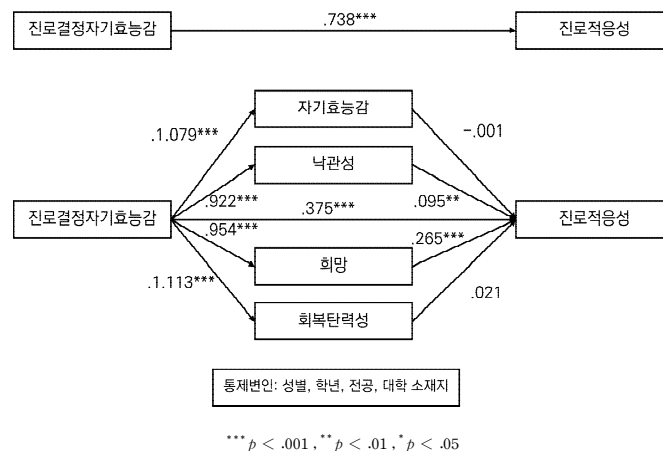
한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심리자본의 효과분해 및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을 보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계인 총효과($B=.738$, $p<.001$)와 직접효과

($B=.375$, $p<.001$) 모두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의 범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크기를 산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총효과와 비교했을 때 직접효과가 감소(.738→.375)한 것으로 나타나 긍정심리자본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해 보면, 전체 매개효과 크기는 .363이며,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의 범위(.205~.394)에 0을 포함하지 않아서 전체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 요인별 매개효과 분석결과, 자기효능감(-.078~.071)과 회복탄력성(-.019~.066)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경로별로 제시한 것이 <그림 2>이다.

<표 6> 긍정심리자본의 효과분해 및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구분	B	boot.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총효과	.738	.025	.688	.787
직접효과	.375	.043	.292	.457
간접효과	자기효능감	-.001	-.077	.069
	낙관성	.087	.032	.141
	희망	.253	.173	.333
	회복탄력성	.024	-.022	.066
전체	.363	.043	.274	.445

<그림 2> 각 경로별 효과크기



마지막으로 다중병렬매개효과 분석에서는 서로 다른 매개변인의 개별 매개효과 크기 비교가 가능하다(이형권, 2020).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이 희망이 자기효능감, 낙관성, 회복탄력성과 비교했을 때 95% 신뢰구간의 범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매개효과 크기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개별 매개효과의 크기

구분	B	boot.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자기효능감 - 낙관성	-.088	.055	-.198	.018
자기효능감 - 희망	-.254	.062	-.372	-.134
자기효능감 - 회복탄력성	-.025	.040	-.103	.054
낙관성 - 희망	-.166	.057	-.281	-.054
낙관성 - 회복탄력성	.063	.040	-.016	.142
희망 - 회복탄력성	.229	.049	.130	.324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진로교육을 계획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내용적 요소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요즘 시대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진로 적응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학생의 성별, 학년, 전공계열, 대학소재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고, 대학생 시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함양해야 할 요소로 밝혀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진로적응성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설정해 Hayes(2013)가 제시한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해 긍정심리자본의 구성요인들의 다중병렬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적응성은 학년과 전공계열, 대학소재지에 따라 유의한 수준에서 평균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난(2022)의 연구처럼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고학년인 3·4학년이 저학년인 1·2학년과 비교해서 진로적응성이 유의한 수준에서 낮은 평균을 보고했는데, 특히 3학년의 진로적응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에 따른 유의하지 않은 평균 차이를 보고한 이난(2022)이나 호기심을 제외한 다른 하위 요인에서 4학년이 유의하게 높은 평균을 보고한 성소연·배성아(2015)의 연구결과와 상이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중 3학년과 4학년의 경우 COVID-19으로 인하여 비대면 수업 등 갑작스러운 환경적 변화를 직접 경험한 2020년~2021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정다운(2022)은 COVID-19를 경험한 대학생과 경험하지 않은 대학생들 간에 진로적응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수준에서 부적인 영향을 미침(이규란·최바울, 2022)을 감안하여 볼 때 조사 시점에 표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본 연구는 전공계열에 따른 유의한 평균 차이가 나타났는데, 어느 정도 진로가 특정되어 있는 의학·예체능 계열 학생들의 진로적응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적응성의 하위 요인 중 관심 영역에서 의과학 전공 학생들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대학소재지에 따라 .05 수준에서 진로적응성의 평균 차이가 나타났는데 다른 지역의 학생들보다 전라도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진로적응성이 가장 낮았다. 진로적응성은 현재처럼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서 직업세계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역량(Savickas & Porfeli, 2012)일뿐 아니라 취업 이후에도 직업 및 삶의 만족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Coetzee & Stoltz, 2015). 따라서 진로적응성이 다소 낮게 나타난 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경우 다양한 진로 및 취업 정책을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다중병렬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긍정심리자본은 전체적으로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매개효과는 낙관성과 희망에서 유의한 매개효과가 나타난 것이고,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낙관성적인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이로 인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적응이 가능하다(Scheier, Carver, & Bridges, 1994). 따라서 이러한 낙관성적인 성향은 상황에 유연한 대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왔고(Aspinwall, Richter, & Hoffman, 2001), 불확실성이 높은 취업 준비를 함에 있어서 진로적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손은령·이순희, 2012; 정은이, 2019). 희망 역시 낙관성처럼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개념이다(Luthans, Youssef, & Avolio, 2007). 특히 희망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목표에 대해 기대감과 가능성을 더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체로 적응적인 대처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Snyder, Cheavens, & Sympton, 1997). 김나래·김지근(2022)은 최근 취업에 임박한 대학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희망이 높은 경우에 진로적응성과 진로구성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진로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 Savickas(2013)가 제시한

진로적응모형을 검증함에 있어서 희망의 중요한 역할을 밝혔다.

한편,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가 보고되지 않았다. 자기효능감은 Bandura(1990)가 제시한 개념으로 크게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특수적 자기효능감으로 구분된다(Bandura, 1997).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삶의 전반적 영역에서의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며, 특수적 자기효능감은 특정 영역에 국한되는 것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여기에 속한다. Bandura와 Locke(2003)는 어떤 행동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적 자기효능감보다 특수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처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일반적 자기효능감보다 진로적응성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을 위한 진로교육을 구안하고 설계하는 단계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높이기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회복탄력성 역시 유의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회복탄력성이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를 제시한 권수정(202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권수정(2022)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회복탄력성은 실패 상황에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힘을 의미하는데 진로와 관련해서는 실패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보다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태도로 다른 방안을 모색하려는 경향 때문이라고 하였다. 회복탄력성은 힘든 역경과 좌절, 실패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원래 상태로 되돌아와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추구하게끔 도와 다른 긍정심리자본의 발휘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서(Reivich & Shatté, 2002) 현재처럼 경제성장률과 고용탄성치가 함께 낮아 고용전망이 낮은 시점에는 매우 중요한 역량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1학년이 가장 많아 아직 구직활동 실패 경험이 많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김주환(2018)은 역경과 어려움으로 인해 밑바닥을 딛고 더욱 높게 날아오르는 힘을 갖게 된다면, 회복탄력성은 어느 정도 실패에 대한 극복 경험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통해 진로적응성 함양을 위한 목적으로 대학생 대상 진로교육을 설계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적 요소를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긍정심리자본의 다중병렬매개효과 분석결과, 긍정심리자본 중 낙관성과 희망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낙관성과 희망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토대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실제 취업 준비를 함에 있어서 적응적인 심리적 기제로 알려져 왔다(김나래·김지근, 2022; 손은령·이순희, 2012; 정은이, 2019; Aspinwall et al., 2001; Snyder et al., 1997). 따라서 그동안 고전적으로 대학생 대상 진로교육에서 많이 다루었던 자기이해, 직업세계, 진로계획, 진로준비 외에(김수란, 2023) 진로교육을 함에 있어서 취업 준비에 임박한 고학년일수록, 또 지역에 위치한 대학일수록 진로적응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긍정심리자본 중 낙관성과 희망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대학생 대상 진로교육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시사점을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 선정 과정에서 성별, 학년, 전공계열, 대학소재지가 비교적 균등하도록 고려하였지만, 실제 응답에 참여한 학생들이 학년과 전공계열에 있어서는 다소 불균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한 학생들이 4년제 종합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어서 전문대학 학생들의 경우에는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긍정심리자본의 다중병렬매개효과 분석결과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의 경우에는 유의한 매개효과를 입증하지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힘든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Bandura, 1990), 회복탄력성은 불확실하고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응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Luthar, Cicchetti, & Becker, 2000)으로 알려져 왔다. 또한 긍정심리자본은 낙관성과 희망과 함께 4가지의 구성요소가 서로 상호작용이 극대화 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Luthans, Youssef, & Avolio, 2007). 따라서 비록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입증하지 못했지만, 추후에는 다양한 진로 관련 변인들과 4가지 긍정심리자본의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각 구성요소들의 중요성이 입증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시대적 상황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진로 분야에 긍정심리 요소를 접목시키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서 사회인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구직활동 중에 경험할지 모르는 실패와 좌절을 의연하게 견디는 내적 자원을 함양할 수 있는 진로교육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민수(2023).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 대한 연구 동향 탐색.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지**, 137-137.
- 강진(2021).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2), 551-565.
- 권수정(2022).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의 다중병렬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11), 378-390.
- 김경은·라영안(2022). 대학생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만족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8), 443-456.
- 김나래·김지근(2022). 대학 졸업예정자의 희망, 진로적응성, 진로구성행동, 진로만족 간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4), 903-917.
- 김민선·고은영(2020). 한국판 진로적응성 단축형 척도(K-CAAS-SF) 타당화. **교원교육**, 36(4), 261-281.
- 김민수(2023.04.19.). 위기의 한국경제,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다...경제성장률 1%대, 고용 탄성치 낮아져. NewQuest, Retrieved (검색일자 2024.01.02.) from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771>.
- 김민정·김봉환(2014). 대학생의 진로자기조절, 진로결정효능감, 합리적인사결정 및 진로탐색행동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7(3), 27-45.
- 김선중(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김수란(2023). 초(超)불확실성 시대의 대학 진로교육 교과목 개발 및 효과.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7(3), 65-78.
- 김승미·손은령·이순희(2021). 진로적응성에 대한 연구동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0), 113-126.
- 김주환(2018). **회복탄력성,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 고양: (주)위즈덤하우스.
- 김지연·장은영(2019). 대학생의 진로적응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진로집단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청소년학연구**, 26(9), 125-159.
- 김형규(2023.11.22). 대학 졸업하는 청년 과반 "올해 취업 어려울 것". 한국경제, Retrieved (검색일자 2024.01.02.) from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226085i>.
- 박미희(2020).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와 지역 격차: 출신 지역 및 대학 소재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30(1), 27-56.
- 박은규·이서정(2018). 대학생 진로적응성 관련 영향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취업진로연구**, 8(3), 35-56.
- 박현미·유나현(2021). 대학생의 진로결정 관련 어려움과 심리적 자원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석. **진로교육연구**, 34(3), 145-171.
- 백은경(2021). **대학생 진로장벽, 성격강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 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성소연·배성아(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적응성 간의 구조적 관계 연구. **청소년학연구**, 22(9), 277-299.
- 손은령·이순희(2012). 대학생의 낙관성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5(3), 181-199.
- 손진희·김유진(2022). 성인 구직자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회복탄력성과 성장마인드셋의 조절효과. **직업능력개발연구**, 25(3), 1-24.
- 유지연·신효정(2019). 진로적응성 연구의 문헌고찰: 진로구성주의 이론의 진로적응모형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32(2),

1-24.

- 육정원(2020). *대학생의 긍정정서와 진로적응성의 관계: 인지적 유연성 및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윤정혜(2020).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 이규란·최바울(2022). 대학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적응성의 관계: 자기주도학습과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9(7), 113-142.
- 이난(2022). 대학생의 핵심역량과 진로적응성 및 진로장벽의 구조적 관계. *교양교육연구*, 16(2), 437-452.
- 이은진(2001). *다재다능한 대학생을 위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형권(2020). *PROCESS macro를 이용한 조절된 매개효과분석*. 파주: (주)신영사.
- 임태홍(2014). 한국판 긍정심리자본척도(K-PPC) 타당화 검증. *코칭능력개발지*, 16(3), 157-166.
- 장현정(2021).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적응수행의 구조적 관계: 진로포부 매개효과와 학과만족도 조절효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정기수·하정희(2018). 대학생의 진로장벽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11), 437-455.
- 정다은(2022). *고학년 대학생의 직업가치관, 취업불안,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정은이(2019). 그릿과 낙관성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교. *교육방법연구*, 31(2), 359-383.
- 정지은(2013).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자기주도학습의 인과적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조성연·민경석(2011). 성과 경제적 수준에 따른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의 차이 및 관계. *진로교육연구*, 24(3), 59-76.
- 전선희(2023.09.06). MZ세대 정신건강이 위험하다...42.1% "극단적 선택 생각한 적 있다". news1, Retrieved (검색일자 2024.01.02.) from <https://v.daum.net/v/20230906060133627>.
- 최규하(2016). *대학생 진로적응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최민서(2024). 대학생의 진로 불확실성 감소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8(1), 117-134.
- Aspinwall, L. G., Richter, L., & Hoffman, R. R.(2001). Understanding how optimism works: An examination of optimists' adaptive moderation of belief and behavior. In E. D. Chand (Ed.), *Optimism and pessimism. Implications for theory research and practice*(pp. 217-23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
- Bandura, A.(1990). Perceived self-efficacy in the exercise of personal agency.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2, 128-163.
- Bandura, A.(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orth Publishers.
- Bandura, A., & Locke, E. A.(2003). Negative self-efficacy and goal effects revisited.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8(1), 87.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Betz, N. E., Klein, K. L., & Talyor, K. M.(1996). Evaluation of a short-form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 Coetzee, M., & Stoltz, E.(2015). Employees' satisfaction with retention factors: Exploring the role of career

- adaptabil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9, 83-91.
- Di Battista, A., Grayling, S., & Hasselaar, E.(2023). *Future of jobs report 2023*. Geneva: World Economic Forum.
- Hackett, G., & Betz, N. E.(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3), 326-339.
- Hayes, A. F.(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ress.
- Hirschi, A.(2009). Career adaptabil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Multiple predictors and effect on sense of power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4(2), 145-155.
- Hong, S., Malik, M. L., & Lee, M. K.(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 Luthans, F.(2002). The need for and meaning of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 23(6), 695-706.
- Luthans, F., & Youssef, C. M.(2004). Human, social, and now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anagement. *Organizational Dynamics*, 33, 143-160
- Luthans, F., & Youssef, C. M.(2007). Emerging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Journal of Management*, 33(3), 321-349.
- Luthans, F., Avey, J. B., Avolio, B. J., & Peterson, S. J.(2010). The development and resulting performance impa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21(1), 41-67.
- Luthans, F., Youssef, C. M., & Avolio, B. J.(2007). Psychological capital: Investing and developing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1(2), 9-24.
- Luthar, S., Cicchetti, D., & Becker, B.(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 Lyubomirsky, S., King, L., & Diener, E.(2005).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131(6), 803.
- Reivich, K., & Shatté, A.(2002). *The resilience factor: 7 essential skills for overcoming life's inevitable obstacles*. New York: Broadway Books.
- Savickas, M. L. (1997). Career adaptability: An integrative construct for life-span, life-space theor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3), 247-259.
- Savickas, M. L.(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Career Construction.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New Jersey: John Wiley & Sons.
- Savickas, M. L.(2013). Career construction theory and practice.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2, 144-180.
- Savickas, M. L., & Porfeli, E. J.(2012). The Career Adapt-Abilities Scale: Construction, reliability, and measurement equivalence across 13 countr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 661-673.
- Scheier, M. F., Carver, C. S., & Bridges, M. W.(1994).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and trait anxiety, self-mastery, and self-esteem): A re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063-1078.
- Seligman, M.(1998). *Learned Optimism: How to Change Your Mind and Your Life*. New York: Pocket Books.

- Snyder, C. R.(2002). Hope Theory: Rainbow in the mind. **Psychological Inquiry**, 13(4), 249-275.
- Snyder, C. R., Cheavens, J., & Simpson, S. C.(1997). Hope: An individual motive for social commerce. **Group Dynamic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2), 107-118.
- Snyder, C. R., Irving, L. M., & Anderson, J. R.(1991). Hope and health. Handbook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The health Perspective**, 162, 285-305.
- Super, D. E., & Knasel, E. G.(1981). Career development in adulthood: Some theoretical problems and a possible solution.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9(2), 194-201.
- Tak, J. K.(2012). Career Adapt-Abilities Scale-Korea Form: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 712-715.
- Taylor, K. M., & Betz, N. E.(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 Tolentino, L. R., Garcia, P. R. J. M., Lu, V. N., Restubog, S. L. D., Bordia, P., & Plewa, C.(2014). Career adaptation: The relation of adaptability to goal orientation, proactive personality, and career optimism.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4(1), 39-48.
- Youssef, C. M., & Luthans, F.(2007).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in the workplace: The impact of hope, optimism, and resilience. **Journal of Management**, 33(5), 774-800.

[abstract]

Multiple Parallel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Adaptability in University Students

Suran Kim*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ontent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designing career education plans to improve the career adapt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who are preparing to transition into the workforce in an era of high uncertainty. For this purpose, 463 university students were surveyed to determine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career adaptability according to gender, grade, major, and university location, and the process macro model 4 was used to test the multiple parallel mediation effects of the componen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adaptability. As a result, first, career adaptability showed significant mean differences by grade, major, and university location, and no differences by gender. Second, when analyzing the multiple parallel mediation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adapt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only optimism and hope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while self-efficacy and resilience were not significant among the componen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when designing career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the importance of optimism and hope amo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o improve career adaptability among senior students who are close to employment and local universities.

KeyWor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areer Adaptabilit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ultiple Parallel Mediating Effects

* First Author,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enring@kmou.ac.kr